



여섯번째 이야기

달리고 달려서...

감사의 시작

이곳은 현재 우기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비가 옵니다. 오후 4시에 내리던 비는 이제 밤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케냐에 도착해 비가 올 때마다 발생하는 정전에 당황했지만, 이제는 우기에 정전이 발생하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1년 전과 다르게 빨리 정전이 복구되기도 하고 아주 심하게 내리지 않는 이상(대부분 심하게 비가 내립니다 ^^;;) 정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아무런 기쁨도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이곳에선 감사로 경험되는 일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비만 오면 정전이 되는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 문제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지?’ 라며 불만만 토로할 수도 있지만, 전기가 들어오는 것에 감사하고 수도가 끊어지지 않아 감사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 작은 변화 한가지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현지에 사는 선교사들의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모든 일을 감사로 살아갈 수 있지만 수도가 끊어지거나 정전으로 전기가 다시 들어오길 바라는 일은 드문 일이지 않을까 합니다.



달려갈 준비

저희 BEE Korea 동아프리카 전임 선교사들(박은형, 윤경환, 권태남/김미연(유하))은 지난 3주간 케냐를 지나 우간다 그리고 탄자니아를 거치며 4000Km 이상을 차로 달려 동아프리카 일부를 순회 방문 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안전한 여행을 하였고 BEE 사역의 많은 열매를 보았고 씨를 심기도 했습니다. 지난 3주간 저희의 경험을 동역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의 힘과 열매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함께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케냐의 남서쪽 키시로 시작하다.

3/26 키시로 270킬로, 6시간을 달려갔습니다. 달리는 중에 스무 번 이상 경찰의 검문을 문제없이 지나쳤습니다. 처음으로 그 긴 여행 중에 단 한 번도 경찰에 잡히지 않았습니 다. 이곳에서 BEE 소개를 준비한 사람은 조지 목사입니다. 냐시옹고 첫 번째 그룹의 구성원인데 매우 활발하고 열정적인 성격으로 이곳저곳을 누비며 BEE를 소개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그룹 뿐만 아니라 냐시옹고 첫 번째 그룹 구성원의 그룹까지 만들어 주어 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니아모노초 교회

3/27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니야모노초 교회의 그룹입니다. 주변의 목회자와 교회의 리더 및 성도들이 모여 발표를 들었고 바로 세미나를 하기로 하여 4월에 일대일을 시작합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은 냐시옹고 두 번째 그룹입니다. 냐시옹고 첫 번째 그룹을 보며 자극 받은 목사님들이 모여 생긴 이 두 번째 그룹은 세미나를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BEE 사역이 확장된 좋은 결과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라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서 BEE 소개를 하고 세미나를 하기 위해 저희가 방문하였고 이제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인도자는 냐시옹고 첫 번째 그룹의 헨리 목사입니다. 키시 카운티는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세미나 인도 방법을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자신의 교회를 자신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같은 그룹이거나 다른 그룹의)이 와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하여 냐시옹고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서로 필드 사역을 다른 목사님의 교회에서 진행함으로 졸업식을 문제 없이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그룹을 만들어 세미나를 완료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는 우리의 조건에 알맞은 방식을 그들 안에서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보멧 카운티의 교회입니다. 이곳 역시 냐시옹고 첫 번째 그룹 목회자의 소개로 모여 발표를 들었고 바로 세미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3/28 냐시옹고 첫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학생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들을 격려하고 자신의 그룹을 갖는 것, 즉, 제자 삼는 일에 충성하라고 박은형 지부장님께서 열변을 토했습니다. 학생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그룹을 통하여 더 많은 세미나와 제자 삼는 일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냐시옹고 첫 번째 그룹은 세계에서 최초로 1년 반 만에 DPM, DBS, DCL 코스를 마치게 됩니다. 매달 2과목의 세미나를 마친 결과이고 심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런 열정과 결단력을 가진 그룹들이 자신들의 그룹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멧 카운티의 교회(상)
냐시옹고 첫번째 그룹(하)

두 번째로 들른 그룹 역시 냐시옹고 첫 번째 그룹의 학생인 에제키엘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이 그룹 역시 바로 세미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냐시옹고 첫 번째 그룹을 통하여 이곳에서 10개의 그룹이 1년 만에 생겨납니다. 이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하며 저희는 28일 늦은 시간에 윤경환 목사님 댁으로 달려갔습니다. 폭우와 어둠을 뚫고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지만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국경을 넘어 우간다로

3/29 분고마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제베디 인도자를 만나 격려를 하고 말라바 국경을 넘어 우간다의 음발레로 달려갔습니다. 분고마 그룹은 허미란 목사님(홀리스틱 미션 소속)께서 만드신 그룹으로 현재 『로마서』까지 마쳤습니다.

음발레를 가기 전날 도미닉 선교사가 이미 그 곳에서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시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로 170명의 목회자에게 BEE 사역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음발레 첫번째 그룹

음발레 첫 번째 그룹은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그룹의 리더격인 올랄라 목사님(Life changers Church 담임)과 사모님이 매우 헌신적이며 사모님은 대학에서 루간다어 문학을 전공하여 학습서 번역에도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루간다어 번역으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3/30 본격적으로 음발레 그룹과의 미팅을 가졌습니다. 도미닉 선교사가 『일대일』, 『십자가를 지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좋은 인도를 해주었지만, 윤경환 목사님께서 진정한 세미나 인도를 보여주시면서 『로마서』 1과를 마쳤습니다. 그 후에 박은형 지부장님이 BEE 소개와 제자 삼는 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열정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이후에 음발레에서 1시간 시골(음발레는 나름 도시입니다.)로 들어가 카부왕가시 교회에서 발표를 하였고 이곳에서도 좋은 반응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그룹은 음발레 첫 번째 그룹의 올랄라 목사님이 모은 그룹입니다. 2시간을 넘게 걸려 찾아오신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세미나는 음발레 처음 그룹이 빨리 DPM을 마쳐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3/31 저희는(박은형, 윤경환, 권태남, 도미닉, 올랄라) 음발레에서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로 달려갔습니다. 아침 6시에 출발한 저희는 1시가 가까운 시간에 약속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인 만큼 엄청나게 차가 막히는 곳을 뚫고 나갔습니다. 올랄라 목사님 말로는 가장 차가 막히지 않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4분의 목회자를 만나 짧게 BEE 소개를 하고 다음에 더 많은 목회자가 모이면 다시 한 번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올랄라 목사님이 모은 이 그룹이 약속한 인원 20명이 되지 않아 실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 막혀서 돌아가는 길이 늦어질까 점심도 먹지 못하고 진자로 이동하였습니다. 캄팔라는 숙박비도 비싸고 다음날 케냐로 넘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진자에 도착해서 과거에 세미나를 진행했다가 멈춰진 그룹의 리더를 만났고 그들은 1년이 넘는 시간동안 BEE 세미나를 애타게 기다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인도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1 진자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진자에서 말라바 국경으로 넘어가는 길 중간에 또 다른 그룹(과거에 시작했던 그

룹)의 리더를 만났고 이들 역시 세미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리더들을 만나 세미나를 이어 나갈 것을 약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토록 긴 여정을 만드신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BEE 세미나를 맛 본 학생들은 항상 세미나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우간다에서도 재생산을 통하여 마르지 않는 세미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토로로에서 올랄라 목사님을 보내고 저희들은 국경을 통해 분고마로 향했고 분고마에 도착한 시간이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다시 밤길을 달려 11시가 넘은 시간에 키타레, 저희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캅체롭과 캅시고리아 지역의 학생들을 격려하다.

4/2 저희 집에서 모두 짧은 휴식이라 칭하며 사역 정리를 하며 보냈습니다.

4/3 저희들은 카모이로 이동하였습니다. 데이빗 목사님 댁을 방문하여 임시 건물을 확인하였습니다. 5월 말에 한인 선교사(양수경)님이 오시면 건물을 마무리 할 예정인데 이곳에서 많은 세미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캅체롭으로 이동하여 도미닉 선교사 댁을 방문하고 숙소로 이동하여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날은 쿠세르오 훈련센터로 이동하여 쿠세르오 두 번째 그룹의 히브리서 세미나 인도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을 격려하여 재생산을 하도록 이야기 했습니다. 이 그룹에 굿니스 선교사가 있고 좋은 학생들이 몇 몇 있습니다. 캅시고리아 훈련 센터를 지나 이텐으로 가는 길에 샤드락 선교사를 만나 인사와 격려를 하고 이텐의 피터 선교사 댁으로 가서 안부를 묻고 세미나를 잘 진행하길 격려했습니다. 또 그곳에서 피델리스(캅시고리아 두 번째 그룹의 리더) 목사님을 만나 격려하고 다시 키타레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만남을 허락하셨고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밝은 포콧

4/4 저희는 포콧으로 이동했습니다. 20년 케냐에서 사역을 하신 한 분의 소개로 이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과 연결된 것도 정말 우연이 겹치며 생긴 일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키타레에서 차량 점검을 하는 곳에 대해서 물어오시면서 세미나 요청을 하셨고 결국에 BEE 소개 약속이 잡혔습니다. 중간에 몇 번 약속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포콧은 키타레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가는 길도 엄청나게 험합니다. 온통 돌길을 1시간 이상 달렸고 총 2시간 반을 달려 도착하니 그곳에서도 10명의 목회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BEE 소개를 들은 이들도 역시 세미나를 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시골에서 500실링(5달러)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이들은 최대한 빨리 세미나비를 만들어 전화 주기로 했습니다. 무중구(이들이 백인을 부르는 말, 스와힐리어, 여기에서 동양인도 백인입니다)가 왔는데 공짜가 아닌 돈을 내야 하는 세미나라 놀라긴 했지만 그들 역시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빨리 그들에게 여유가 생겨 세미나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또 다시 국경을 넘어 탄자니아로



탄자니아 선교사님과 함께

탄자니아를 방문할 일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윤경환 목사님께서 탄자니아의 조병훈, 이동선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면서 지난해에 진행하지 못한 세미나를 이어서 진행하는 일정을 잡았습니다. 피터 선교사와 샤드락 선교사가 과거에 진행했던 세미나와 새로 시작하는 세미나를 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그룹은 카라투에서 한 그룹은 마구구라는 지역에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우간다에 있는 동안 도미닉 선교사가 탄자니아에서 BEE 소개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는 이야기를 했고 이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일정을 잡아보도록 했습니다. 이 일정이 4월 2일에 확정되어 탄자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1번의 BEE 소개와 BEE 세미나를 진행하는 두 그룹을 만나 격려하는 일정이었습니다.

4/9 또 국경을 넘었습니다. 케냐에서 우간다로 넘어갈 때도 달랐습니다만 탄자니아는 또 달랐습니다. 세 나라 모두 화폐가 다르고 통신사가 다릅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유심을 사서 데이터를 충전하는 것도 경험이었습니다. 우간다 국경을 넘을 때도 쉽지 않았지만 탄자니아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을 항상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국경에서 피터, 샤드락 선교사를 만났고 인사를 마치고 각자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피터 선교사는 카라투로, 샤드락 선교사는 마구구로, 저희(박은형, 윤경환, 권태남/김미연(유하), 도미닉)는 아루샤로 가서 BEE 소개를 진행할 곳을 소개받아 도미닉 선교사를 남겨두고 카라투로 이동했습니다. 카라투에서 조병훈 선교사님택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이동선 선교사님, 조병훈 선교사님 가정과 함께 BEE 사역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조병훈 선교사님은 그곳에서도 250명의 목회자들이 빨리 재생산이 이루어지길 원하셨고 좋은 인도자들을 많이 보내길 약속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4/10 아루샤로 이동한 저희들은 시내의 한 교회에서 9명이 넘는 비숍들과 13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BEE를 소개했습니다. 다르살렘(탄자니아의 수도)에서도 2명의 비숍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10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와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게된 사실은 비숍이 3명 모이기도 힘든데 9명이 모인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비숍은 노회장과 비슷합니다. 박은형 지부장님의 열띤 소개를 통하여 5월 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3권의 일대일 교재를 판매하였습니다. 비숍이 9명 모이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곳에서 바로 세미나를 시작하기로 한 것도 처음이라고 이들이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기에 아루샤에서 BEE 소개를 마치고 저희는 바로 마구구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샤드락 인도자가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이곳에는 현지인과 결혼한 한인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고, 이 선교사님께서 남편 목사님과 개척한 교회의 목사들과 리더들을 대상으로 세미나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혼자서 전기도 물도 없는 곳에서 15년 넘게 수고하며 맺은 열매들을 소중히 가르치는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세미나를 만족해 하고 기뻐했으며 열정적으로 저희들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긴 여정을 항상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언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구구에서 다시 아루샤로 돌아오니 저녁 9시 가까이 되었고 늦은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케냐로 집으로...

4/11 저희는 나이로비로 출발하여 저녁 8시에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박은형 지부장님은 9시에 네팔로 가기위해 공항으로 떠나 자정에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윤경환 목사님과 저희 가정은 다음날 차량 점검(아침 9시에 나가 저녁 9시에 들어왔습니다) 을 했습니다. 다음날 저희 가정은 키타레로, 윤경환 목사님은 시아야의 니야로 가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지 목사님

집에 돌아온 저는 2일 동안 정신 없이 재정 정리를 했고 세미나 확인을 하고 많은 시간 잠을 잤습니다. 이제 일어나 3주간의 일정을 정리하니 하나님께서 많이 도우시고 미리 준비하셨다고 느껴집니다

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했고 감사의 기도제목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저는 88,000킬로를 주행한 중고차를 구입했고 100,000에 엔진오일을 교체하려 했습니다. 처음 키시로 출발할 때 98,000킬로 였던 차는 현재 집에 도착하니 102,000이 넘었습니다. 4,000킬로 이상을 달리며 사역을 도와준 이 차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라 믿습니다.

재생산과 감사

3주간의 경험으로 알게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밟은 모든 곳에서 세미나가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밟지 않은 땅은 세미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있고 현지인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현지인 선교사들과 함께 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케냐의 120개 가량의 세미나 중에 저는 한개의 세미나도 인도하지 않았고 윤경환 목사님과 박은형 지부장님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인도자들이 100개 이상의 세미나를 인도하며 이곳에서의 BEE 세미나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세미나가 잘 이루어지게 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물론 세미나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생산을 통한 확장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열려진 환경 가운데 바쁘게 지내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번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립니다.

(글: 권태남 선교사, 편집: 이경주)

BEE 소식

- 18년 전 한 분의 선교사가 카타르에 가서 시작한 BEE 사역의 결과로 4월 14일 200석 넘는 자리가 가득 찬 졸업식이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케랄라인, 텔레구인, 네팔인, 필리핀인, 카메룬인, 중국인, 한국인이 졸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2 말씀을 확인하게 하는 자리였습니다.
- 4월 20 - 29일 24명의 우리의 동역자들이 그리스, 이태리 성지순례를 다녀옵니다. 봐야할 것을 보고, 느껴야 할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4월 16 -18일 네팔에서 50여명의 현지 선교사님들과 핵심 인도자들이 베네타에서 모여 영성 컨퍼런스를 합니다.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左上)졸업 DCL
(左下)중국 특별 찬양

(右上)도하의 BEE 학생
(右下)졸업생들